

연구논문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 수준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김지영* · 이윤석**

이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 수준이 결혼이민자의 성별과 공적, 사적, 일상적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결혼이민자는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공적, 일상적 영역에서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사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지각의 수준 차이는 출생 국적, 한국어 능력, 교육수준, 사회적 연결망 등을 모두 통제하여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공적, 일상적 영역에서의 차별문제를,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차별지각, 결혼이민자, 공적 영역, 일상적 영역, 사적 영역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부교수(paul823@uos.ac.kr), 제1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yslee@uos.ac.kr), 교신저자.

I. 서론

차별은 국가의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차별이란 내집단인 다수집단이 외집단인 소수집단에 대해 심리적 편견을 가지고 부당한 평가를 내리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데(Tajfel 1970; Dovidio, Hewstone, Glick, & Esses 2010), 이러한 심리적 편견과 부당한 평가의 기반에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종적, 종족적 차이(Gong, Xu, & Takeuchi 2017)나 문화적 차이(Portes & Rumbaut 2001)가 존재한다.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진 역사가 오래된 만큼 차별문제를 다루는 방식도 변화를 겪어왔다. Romero & Robert(1998)는 차별을 연구하는 방향이 크게 주류집단 가운데 어떤 사람이 편견을 갖고 차별적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가려내는 것에서 차별을 당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바뀌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차별문제에 관한 관심은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다문화사회가 명시된 2000년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민무숙·이수연·박영도·이준일 2004; 박수미·정기선·김혜숙·박건 2004;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김태홍·안상수·박선영·김난주 2011; 변수정·정희선·김기태·이창원·김희주 2021).

차별에 대한 정책 보고서들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성, 나이, 장애인, 학벌이나 학력, 그리고 지역 차별까지 광범위한 차별문제를 다뤘다. 이 연구들은 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차별의 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차별지각(perceived discrimination)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사용하였다. 차별지각은 차별을 당한 소수집단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무엇이 차별행위인가를 주류집단의 관점에서 정의하기보다 소수집단이 차별이라고 인식한 행위 그 자체를 차별로 파악하여 차별문제를 논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차별지각은 앞서 언급한 차별에 대한 연구방향의 변화를 잘 드러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김희정·조영아(2017)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소수집단이 인지한 차별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별 차별지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는 결혼이민자(김이선 2021)가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차별, 특별히 스스로 차별이라고 인지한 차별지각 현황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결혼이민자라는 소수집단이 갖는 차별지각을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성 결혼이민자로 나누어, 같은 결혼이민자라는 지위를 가지더라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에 따라 차별을 지각하는 영역이 다른지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를 비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포괄적으로 정의된 결혼이민자¹⁾ 가운데 남성 비율이 2009년부터 2021년 사이에 12.7%에서 18.9%로 증가하고, 그 절대 수 또한 15,876명에서 31,94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한국의 결혼이민자를 여성 결혼이민자로 국한하기 어려워졌다는 점²⁾을 들 수 있다. 둘째, 차별지각은 주로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권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를 말하지만(Krieger 2014),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북아메리카나 유럽지역 출신이 많다. 때문에 남성 결혼이민자와 여성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자라는 지위 이외에 출신국가의 경제적 지위나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지위의 면에서 확연히 다른 지위를 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이제까지 결혼이민자의 차별에 대한 선행연구(김한성·이유신 2013; 김희정·조영아 2017; 조선주·안주희 2020; 임정희·김보경 2021; 조하영 2021; 김지영·이윤석 2022)가 여성 결혼이민자에 초점을 맞추어온 것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차별을 지각하는 영역을 다양한 지점으로 확장하여 분석해 나가하고자 한다. 특히, 외집단 또는 소수집단이 지각하는 차별의 수준이 병원, 치안, 교육, 지방정부행정과 같은 공공서비스영역, 공공장소와 사적인 장소, 일터와 직업훈련장 등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Araico, Mason, Sáez, & Schwartz 2020)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남녀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을 장소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결혼이민자라는 지위에 더하여 성별이라는 변수가 차별을 지각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주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연구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뿐만 아니라 거주(F-2), 국민배우자(F-2-1, F-5-2, F-6-1), 영주(F-5),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고려하였다.

2) 국적(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법무부(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conn_path=I3)(검색일: 2022년 8월 24일).

2. 여성과 남성 결혼이민자가 갖는 차별지각의 수준은 장소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소수집단의 차별지각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학술적, 정책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이 다루어진 현황과 그 특징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변수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이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경험한 차별지각을 각각 구분하여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점을 발견하고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에 대해 서술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나가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차별지각의 개념과 중요성

차별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판단 또는 불공평한 대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Williams, Spencer & Jackson 1999). 차별은 본질적으로 모욕적이고 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Landrine & Klonoff 1996), 차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개념으로 차별지각(perceived discrimination)을 꼽을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지각은 차별을 당한 소수집단의 인식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서, 무엇이 차별행위인가를 주류집단의 관점에서 정의하기보다 소수집단이 차별이라고 인식한 행위 그 자체를 차별로 파악하여 차별문제를 논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차별지각은 특정 종족이나 그룹에 속하는 구성원이 스스로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Cardo 1994), 부당한 대우가 사회 내에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지 않고 특정 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Bank, Kohn-Wood, & Spencer 2006).

차별지각은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이 실제로 차별을 받았는가 여부, 즉 차별인지

아닌지 그 정확성이나 객관성을 가려내는 것보다 누가 언제 차별을 인식하는가라는 주관적 측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Pascoe & Richman 2009). Lazarus & Folkman (1984)은 차별의 발생 그 자체보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스스로 차별이라고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처럼 소수집단이 인지하는 차별의 주관적인 측면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차별이 미묘하고 만성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Lee & Turney 2012), 소수집단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 대부분이 ‘친숙한 관행’(familiar practices)처럼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Bank, Kohn-Wood, & Spencer 2006). 이러한 차별은 차별의 대상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차별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소수집단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떨어뜨리고 행복감을 감소시키며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려 이들이 경제,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을 높인다(Major, Quinton, & McCoy 2002; Andriessen, Fernee, & Wittebrood 2014; Schmitt, Branscombe, Postmes, & Garcia 2014).

둘째,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스스로 차별이라고 지각하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심리적 부적응 또는 객관적 또는 주관적 건강의 문제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제로 이어지기 쉬우므로(Clark, Anderson, Clark, & Williams 1999), 차별지각은 소수집단의 사회적응 수준과 건강의 상태를 가늠하고 사회통합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지각의 차이보다 소수집단으로 분류된 집단 내에서 성별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결혼이민자가 수적인 면에서 여성 결혼이민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남성 결혼이민자와 여성 결혼이민자가 갖는 인구사회학적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소수집단의 차별지각을 집단 내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해외 연구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Forman, Chen, & Evans 1997; Kessler et al. 1999; Sellers & Shelton 2003; Bank, Kohn-Wood, & Spencer 2006),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차별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이나, 우울증, 불안이나 공포 등을 강하게 경험하고 내면화하는 집단이 여성이라는 연구결과(Bank, Kohn-Wood, & Spencer 2006)도 보고되고 있

지만 그 역시 경험적인 관찰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차별지각의 유무나 빈도뿐만 아니라 차별지각이 소수집단에 미치는 심리적, 물리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국내 연구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지각하는 차별 수준의 성별 차이를 탐색한 연구(김유균·손인서·김승섭 2015)는 손에 꼽힐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지각하는 차별 경험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차별지각의 성별 차이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가족생활에서 여전히 가부장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최소한 가족 관계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더 큰 차별을 느낄 수 있다(성윤희·정주리 2019). 그렇지만 동시에 여성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출신들이 더 많은 남성 결혼이민자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대수준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을 성별에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더라도 남성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느낄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김태홍·안상수·박선영·김난주 2011). 기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상반된 가능성은 대표성 있는 자료를 통한 성별 비교·연구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이 주목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남녀에 따라 출신국의 경제력 수준과 연령, 생활하고 있는 지역, 한국인과의 네트워크 분포 등이 확연하게 다르다(<표 1> 참조). 그뿐만 아니라 앞의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은 차별에 대한 기대수준 자체가 다르며 차별을 지각하는 수준과 차별로 인해 받는 물리적, 심리적 피해 역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결혼이민자가 느끼는 차별지각의 현황에 대해서도 주목하지만, 그와 함께 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가 인지한 차별지각의 차이 즉, 성별에 따른 차이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결혼이민자가 인지하고 있는 차별지각의 수준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한다.

2.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연구

결혼이민자가 겪는 차별문제에 관한 관심은 차별 전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술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혼이민자의 차별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한 시점은 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중

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민무숙·이수연·박영도·이준일(2004)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차별에 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게 된 시점은 민주화 운동과 진보적인 여성단체의 운동이 활발했던 1980년대부터이며 1987년에 제정된 남녀평등고용법이 여성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차별 개념이나 기준을 정하는 데 지침이 되었다. 이후 소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년층 등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배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 과정에서 결혼이민자에 앞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차별은 개인의 자유 향유나 권리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라는 점이 지적되기 시작했으며, 차별해소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소수집단이 갖는 차별지각에 관한 관심도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수미·정기선·김혜숙·박건(2004)은 김대중 정권기에 성, 연령, 학벌,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비정규직을 6대 차별 대상집단으로 선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와 같은 소수집단의 경우 분배에 대한 불만을 품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차별지각이 높아지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차별 전반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해소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 차별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 차별지각 수준이 높은 분야에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점, 다수집단의 차별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수집단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쏠리면서 다문화 정책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시화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차별문제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어떤 형태로 적응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은 결혼이민자의 이주가 시작된 초기부터 연구주제가 되었고(최운선 2007; 정기선·한지은 2009; 김순규·이주재 2010), 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차별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문화적 적응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서 주목을 받아왔다(김한성·이유신 2013; 조하영 2021; 김지영·이윤석 2022). 또한, 이들이 겪고 있는 차별이 갖는 의미를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풀어내고자 하는 연구(Lee & Kim 2014; 김유균·손인서·김승섭 2015; 류한수 2016; 최연희·이현승 2016; 김희정·조영아 2017; 신난희 2018; 임경희·김보경 2021) 역시 증가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최연희·이현승 2016), 다양한 곳에서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자가 한 곳에서 차별을 경험한 결혼이민자보다 자신의 주관적 건강 수준을 나쁘게 인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Lee & Kim 2014). 차별 경험이 결혼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차별 경험과 주관적 건강 사이의 유의한 연관성은 남성 결혼이민자에게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 결혼이민자에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보고되어 여성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이 건강 상태 악화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균·손인서·김승섭 2015).

한편,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이 갖는 의미 그 자체에 주목한 질적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의 본질을 출신국으로 인해 무시당하는 이방인, 가족관계 내에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받는 부당한 대우, 일상생활에서 겪는 무시나 저평가, 한국 정착에 대한 의지 약화 또는 강화에서 찾기도 하며(김희정·조영아 2017), 차별 경험을 고용, 소비, 지역사회, 행정기관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형태를 반말, 무시, 간섭, 의심, 사생활 간섭, 부정적 시선 등으로 세분화하여 차별의 형태를 구분하기도 한다(신난희 2018). 임경희·김보경(2021)도 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피부색으로 대표되는 출신국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무시를 당한다고 인지하는 것이 이들의 차별지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지역사회와 가족 내에서 권위를 강요받거나, 간섭 또는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고, 가족 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경제력을 박탈당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차별지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을 장소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한국인의 차별적 성향을 고려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 교원의 경우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연수를 시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고, 2022년 9월에는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 심사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공적인 응대 및 대응은 언제든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차별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

능하다. 따라서 같은 한국인이더라도 결혼이민자를 만나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한국인의 태도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 수준을 장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면 정책적 대안 역시 결혼이민자의 생활영역이 갖는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마련할 수 있다. 즉, 정책적 제안을 맥락에 따라 제안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어 차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증거 기반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률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유일하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5조에서도 다문화이해교육이나 방송 홍보영상의 송출이라는 거시적인 정책만이 제시되어 있고, 여러 차례 의안으로 접수된 차별금지법안에서도 고용, 재화·용역·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행정서비스 이용이라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금지한다는 기본적 원칙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이들의 차별지각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별을 지각하는 영역을 다양한 장소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 역시 생활영역의 특성에 따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Ⅲ. 분석자료 및 변수 설명

이 연구에서 사용할 자료는 2018년에 실시된 제4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이하, 2018년 다문화가족조사)이다. 이 자료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단위의 표본조사이며 18세 이상의 결혼이민자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녀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이 생활영역의 특성에 따라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계되었다.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논문에서는 2018년 다문화가족조사 응답자 중 조사 당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인 여성 결혼이민자 12,350명과 남성 결혼이민자 2,730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 유무이다. 차별 경험의 유무는 응답자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지각한 빈도를 물어보고 있어서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 여부로 사용되었다. 2018년 다문화가족조사에서 결혼이민자는 지난 1년(2017

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 동안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 또는 ‘없다’로 응답하였으며,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여섯 개의 영역에서 차별받은 경험의 빈도를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가끔 차별을 받았다’, ‘자주 차별을 받았다’, ‘매우 자주 차별을 받았다’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였다. 분석에서는 ‘없다’와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를 묶어 각 영역에서 차별 경험이 없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응답은 각각 가끔, 자주, 매우 자주로 코딩하였다.

차별지각을 테스트하는 여섯 개의 영역에는 거리와 동네, 상점/음식점/은행 등, 공공기관(주민센터나 경찰서 등), 직장/일터, 자녀의 학교나 보육 시설, 집(가족관계, 친척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결혼이민자 가운데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를 분석에 모두 포함시키기 위하여 여섯 개의 영역 가운데 자녀의 학교나 보육 시설에서 느낀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앞서 언급한 다섯 개의 영역을 특성에 따라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일상적인 영역으로 묶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기서 공적 영역이란 법의 규칙이 적용되는 공공서비스의 공간을 포함하고, 노동과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생산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강재원 2013; 양현아 2013)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주민센터나 경찰서 등)과 직장/일터가 포함되어 있다. 거리나 동네, 상점/음식점/은행은 Williams, Yu, Jackson, & Anderson (1997)이 개발한 일상적 차별 스케일(everyday discrimination scale, EDS)에 등장하는 장소와 겹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상적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사적 영역은 국가로부터 벗어난 공간으로 가정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나 친척 등이 포함되어 있는 집을 사적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이 어느 영역에서 두드러지는가, 차별지각의 영역은 남녀 결혼이민자에게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결혼이민자의 성별이다. 결혼이민자의 성별이 차별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영역별로 살펴보기 위해 차별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에 투입한 통제변수는 결혼이민자의 나이, 혼인 상태, 출생 시 국적, 현재 국적, 교육 연수, 직업, 일자리의 종류, 한국어 실력, 도움을 받을 사람, 모임 활동, 자녀의 유무, 가구 수입, 거주 지역의 규모이다. 분석에서 활용되는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를 성별에 따라 제시하고 기초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징: 결혼이민자의 성별에 따라 (단위: %, Mean)

		남성	여성	전체	
연령	20대	3.70	20.09	17.12	
	30대	32.09	41.21	39.56	
	40대	32.23	25.03	26.33	***
	50대	18.35	9.87	11.41	
	60대 이상	13.63	3.80	5.58	
출생시 국적	베트남	1.50	22.15	18.42	
	한국계 중국인	27.66	18.41	20.09	
	중국	6.63	13.13	11.95	
	필리핀	0.81	8.47	7.08	
	일본	4.65	7.68	7.14	
	캄보디아	0.11	5.39	4.44	
	태국	0.33	4.19	3.49	***
	대만	5.90	1.79	2.53	
	한국	6.08	1.46	2.29	
	미국	9.30	1.08	2.57	
	캐나다	3.48	0.30	0.88	
	파키스탄	4.76	0.08	0.93	
	기타	28.79	15.87	18.21	
현재 국적	한국	39.01	47.78	46.19	***
	외국	60.99	52.22	53.81	
교육연수		12.26	11.24	11.43	***
한국어 실력		3.82	3.75	3.76	**
직종	무직	14.84	41.35	36.55	
	전문가·관리자	29.45	7.77	11.70	
	사무 종사자	7.91	3.16	4.02	***
	서비스 종사자	11.39	14.44	13.89	
	단순노무 종사자	35.86	28.93	30.19	
	농임어업 종사자	0.55	4.35	3.66	
종사상 지위	무직	14.84	41.35	36.55	
	상용 근로자	45.53	24.71	28.48	
	임시 근로자	21.14	21.67	21.57	***
	자영업자	16.48	5.51	7.50	
	무급가족 종사자	2.01	6.75	5.90	
<i>N</i>		2,730	12,350	15,080	

* $p < .05$, ** $p < .01$, *** $p < .001$.

주: 범주변수는 분할표 분석을, 연속변수는 t-test를 실시함.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징: 결혼이민자의 성별에 따라(표 계속) (단위: %, Mean)

		남성	여성	전체	
도움을 받을 사람 : 집안의 어려움	없음	31.25	30.26	30.44	
	한 그룹	51.65	54.58	54.05	***
	두 그룹	14.51	14.03	14.12	
	세 그룹 이상	2.60	1.13	1.39	
도움을 받을 사람 : 여가나 취미생활	없음	32.78	39.88	38.59	
	한 그룹	49.74	48.08	48.38	***
	두 그룹	14.43	11.00	11.62	
	세 그룹 이상	3.04	1.04	1.41	
도움을 받을 사람 : 몸이 아플 때	없음	34.32	38.69	37.90	
	한 그룹	51.21	49.72	49.99	***
	두 그룹	12.53	11.00	11.27	
	세 그룹 이상	1.94	0.59	0.84	
모임활동 : 모국인 친구	없음	39.71	39.21	39.30	
	있음	60.29	60.79	60.70	
모임활동 : 지역 주민	없음	89.93	84.07	85.13	***
	있음	10.07	15.93	14.87	
모임활동 : 종교 활동	없음	76.23	75.91	75.97	
	있음	23.77	24.09	24.03	
모임활동 : 민간 단체	없음	96.08	91.91	92.67	***
	있음	3.92	8.09	7.33	
모임활동 : 정치활동, 노동조합	없음	98.68	98.83	98.80	
	있음	1.32	1.17	1.20	
미취학 자녀	없음	67.07	58.08	59.71	
	1명	24.18	29.38	28.44	***
	2명	8.75	12.53	11.85	
취학 자녀	없음	74.03	58.04	60.94	
	1명	18.46	25.52	24.24	
	2명	7.51	16.44	14.82	
가구 수입	100만 원 미만	4.51	3.47	3.66	
	100-200만 원	10.88	12.29	12.04	
	200-300만 원	20.77	28.41	27.03	
	300-400만 원	21.83	26.74	25.85	***
	400-500만 원	15.71	15.77	15.76	
	500-600만 원	10.04	6.99	7.54	
	600-700만 원	6.15	2.65	3.28	
700만 원 이상	10.11	3.68	4.85		
지역	도시	78.06	60.84	63.96	***
	농촌	21.94	39.16	36.04	
N		2,730	12,350	15,080	

* $p < .05$, ** $p < .01$, *** $p < .001$.

주: 범주변수는 분할표 분석을, 연속변수는 t-test를 실시함.

결혼이민자의 출생시 국적은 여성은 베트남이, 그리고 남성은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미국, 캐나다 같은 서구권과 대만이나 파키스탄 등의 국적을 보유한 또는 보유하였던 비율이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높다. 반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성 결혼이민자의 출신지역과는 달리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등 주로 아시아권역에서 출생한 비율이 높다. 특히하게도 결혼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시 국적이 한국인 경우가 보인다.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과 함께 외국 국적을 동시에 소유한 경우,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같이 갖게 되는 경우, 출생시 국적으로 한국과 외국을 동시에 표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출생시 국적을 한국이라고 코딩하였다. 즉 남성 6.08%, 여성 1.46%는 이러한 복수국적자이다. 현재 국적을 살펴보면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60.99%인데 반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52.22%만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한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처럼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 비율이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실력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남성 결혼이민자가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스스로 한국어가 유창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8년 다문화가족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출신 지역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수준을 교육연수로 조사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교육연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직종은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전체의 35.86%, 전문가 및 관리자가 29.45%, 서비스 종사자가 11.39%이며 무직은 14.84%인 데 반해,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무직의 비율이 41.35%로 가장 높고 단순 업무 종사자가 28.93%, 서비스 종사자가 14.44%, 전문가 및 관리자가 7.77%로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전문가 및 관리자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용 근로자의 비율이 45.53%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성 결혼이민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의 비율은 24.71%로 낮고 임시 근로자가 21.67%로 상용 근로자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차지한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연결망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국인이거나 한국인 또는 기

타 외국인이 있는가 여부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활동의 종류와 개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집안의 어려움이 있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몸이 아플 때 모국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한국인, 그리고 기타 외국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망이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도움을 주는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한다(Taylor 2007). 예를 들어 주로 여가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나 동료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지들이 우울증 감소에 더 큰 보탬이 된다고 한다(염영희·손희숙·이현숙·김명애 2017).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차별경험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분석에서 세 가지 경우를 나눠 투입해보니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각각을 따로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그에 반해 현재 모임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여성 결혼이민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지역주민 모임, 민간단체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

결혼이민자의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미취학 자녀 수가 남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미취학 자녀 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남성 결혼이민자의 가구가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에 비해 가구 수입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경우 남성 결혼이민자의 78.06%가 도시에 살고있는 데 반해 여성 결혼이민자는 60.84%만이 도시에 살고 있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결혼이민자의 가구 특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종합해 보면, 한국의 결혼이민자를 성별로 나누어 봤을 때 남성 결혼이민자와 여성 결혼이민자는 연령, 출신 지역, 교육수준, 한국어 실력, 직종, 종사상 지위, 사회적 연결망 활용 정도, 가구형태의 모든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으며 전문직 또는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 관계를 풍부하게 맺고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가 외국인임과 동시에 결혼이민자라는 점에서는 서로 동등한 지위에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남성 결혼이민자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서 보이는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는 차별지각의 수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아니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결혼이민자의 성별이 이들의 차별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하의 분석에서는 결혼이민자가 갖는 차별지각의 수준을 성별이라는 독립변수와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통제변수를 통해 살펴보면서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이 갖는 특징을 성별과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라는 측면에서 짚어 보고자 한다.

IV. 분석결과

1. 결혼이민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지각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표 2>는 결혼이민자가 공공기관, 직장이나 일터, 거리나 동네, 상점이나 음식점 및 은행, 집안이라는 다섯 개의 영역에서 지각한 차별의 수준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응답범주는 서열변수로 범주변수 또는 연속변수 모두로 볼 수 있어서 t-test와 분할표 분석 모두를 실시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음을 보고 한다.

전체적인 응답분포로 봤을 때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관계나 친척관계를 포함한 집이 93.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92.66%, 상점이나 음식점 및 은행 등이 85.22%, 거리나 동네가 85.21%, 직장이나 일터가 78.86% 순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가장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집과 가장 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차별지각 수준이 낮지만,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동네, 상점이나 음식점 및 은행 등에서 차별을 지각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직장이나 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적 영역으로 분류되지만, 결혼이민자의 취업 경로와 종사상의 지위 등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일하는 일상적 영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영역별로 나타나는 차별지각 수준을 성별로 살펴봤을 때 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가 각각의 영역에서 차별을 지각한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다르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장 공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남성 결혼이민자가 가끔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8.50%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5.21%보다 높고, 자주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1.87%로 여성 결혼이민자의 0.75%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매우 자주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 역시 남성 결혼이민자가 1.17%, 여성 결혼이민자가 0.45%로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지각한 비율은 남성 결혼이민자가 높다.

직장과 일터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결혼이민자가 직장에서 가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9%, 자주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2%, 매우 자주 차별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2.02%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00%, 자주 또는 매우 자주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24%, 1.23%로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나 동네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과 상점이나 음식점 및 은행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빈도를 불문하고 남성 결혼이민자가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성 결혼이민자가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거리나 동네, 상점이나 음식점 및 은행 등에서 차별을 지각한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인 영역과 일상적인 영역에서 남성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 수준이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높았던 것과는 달리,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 결혼이민자가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집에서 가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6%로 남성의 3.37%보다 높았고, 자주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0.83%로 남성의 0.37%보다 높았으며, 매우 자주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0.46%로 남성의 0.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리해 보면,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공적 영역이나 일상적 영역에서 차별을 지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사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지각하는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차별지각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는 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변수를 통제해도 여전히 나타나는가? 아니면 통제변수를 투입할 경우 사라지는가? 다음 절에서는 공적 영역, 일상적 영역, 사적 영역이라는 세 영역을 분류하며 영역별로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 유무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2> 차별지각 수준의 분포: 성별에 따라 (단위: %)

		남성	여성	전체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다음의 장소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습니까?					
공공기관	없다	88.46	93.59	92.66	
	가끔	8.50	5.21	5.80	***
	자주	1.87	0.75	0.95	
	매우 자주	1.17	0.45	0.58	
직장·일터	없다	76.77	79.53	78.86	
	가끔	16.69	16.00	16.17	***
	자주	4.52	3.24	3.55	
	매우 자주	2.02	1.23	1.42	
거리·동네	없다	83.19	85.65	85.21	
	가끔	13.70	12.45	12.68	***
	자주	2.09	1.35	1.49	
	매우 자주	1.03	0.54	0.63	
상점 음식점 은행	없다	83.41	85.62	85.22	
	가끔	13.08	12.47	12.58	***
	자주	2.34	1.31	1.50	
	매우 자주	1.17	0.60	0.70	
집 가족관계 친척	없다	96.04	93.25	93.75	
	가끔	3.37	5.46	5.08	***
	자주	0.37	0.83	0.75	
	매우 자주	0.22	0.46	0.42	
<i>N</i>		2,730	12,350	15,080	

* $p < .05$, ** $p < .01$, *** $p < .001$.

주: 성별 차이는 분할표 분석과 t-test를 통해 확인함.

2. 남녀 결혼이민자가 갖는 차별지각의 수준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일상적 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1) 공적 영역

<표 3> 공적 영역의 차별지각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공공기관		직장/일터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성별(기준=남성)	여성	-0.651***	-0.532***	-0.178**	-0.306***
연령			0.044		0.008
연령 제공항			-0.080**		-0.021
출생시 국적 (기준=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0.109**		-0.023
	중국		0.024		-0.052
	필리핀		0.031		-0.076
	일본		0.029		-0.548***
	캄보디아		-0.038		-0.315
	태국		-0.228*		-0.118
	대만		0.961**		-0.755**
	한국		0.773**		-0.992***
	미국		0.348		-0.683***
	캐나다		0.261		-0.682*
	파키스탄		0.323		-0.220
기타		0.217		-0.117	
현재 국적(기준=한국)	외국		0.170*		0.110
교육 연수			0.013		-0.005
일자리 종류 (기준=무직)	상용 근로자		0.036		1.309***
	임시 근로자		0.155		1.353***
	자영업자		0.139		0.816***
	무급가족 종사자		-0.376*		
한국어 실력			-0.169***		-0.258***
도움을 받을 사람: 집안의 어려움			-0.080		-0.182***
도움을 받을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			-0.037		0.048
도움을 받을 사람: 몸이 아플 때			0.129		-0.053
모임활동: 모국인 친구			0.091		0.123*
모임활동: 지역 주민			0.130		-0.183*
모임활동: 종교 활동			0.283***		0.250***
모임활동: 민간 단체			0.510***		0.441***
모임활동: 정치활동, 노동조합			0.528*		0.278

미취학 자녀		0.012		-0.060	
취학 자녀		0.010		-0.074	
가구 수입		0.020		-0.055**	
지역(기준=도시)	농촌		-0.235**	-0.146*	
Log Likelihood		-4639.273	-4492.606	-6319.330	-6071.418
Pseudo R ² 2		0.0085	.0398	.0008	.0400
N		15,080	15,080	15,080	15,080

* $p < .05$, ** $p < .01$, *** $p < .001$.

<표 3>은 공적 영역으로 구분한 공공기관과 직장 및 일터에서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지각하는 정도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모델 1). 모델 2에서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나이, 혼인 상태, 출생시 국적, 교육 연수, 일자리 종류, 한국어 실력, 사회적 네트워크, 가구 수입, 사는 지역의 특징과 같은 변수를 투입하였다.

결혼이민자가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지각할 확률은 출생했을 때 한국계 중국인보다는 대만이나 한국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일수록 높다. 또한, 한국어 실력이 어눌할수록, 종교나 민간단체, 정치적 활동 모임에 참여할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가 어눌할수록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언어능력이 좋을수록 더 많은 종족집단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호스트 국가의 문화와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Gong, Xu, & Takeuchi 2017)와 상충하는데, 이는 이민자가 경험한 차별이 한국어가 어눌한 것 그 자체 때문에 받았던 무시나 불친절함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 즉, 언어와 관련된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눌한 한국어에 대한 무시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어감상의 무시인지, 응대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의 문제인지에 따라 차별로 인지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종교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일상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신념이나 특성을 드러낼 확률이 높아서 종교 활동의 빈도와 차별지각 사이의 연관성은 일상생활에서 종교적인 특성이나 신념을 드러내는 이민자가 그렇지 않은 이민자에 비해 차별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Andriessen, Fernee, & Wittebrood 2014)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성별 변수가 차별을 지각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투입했을 때 약간 낮아질 뿐이며 그 효과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와 남성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지각할 확률의 양상은 직장 및 일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모델 1은 직장 및 일터에서도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투입한 모델 2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출생시국적이 일본, 대만, 한국, 미국, 캐나다일 경우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민자보다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낮아진다. 여기서 미국과 캐나다 출신 결혼이민자는 피부색이 차별지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Gong, Xu, & Takeuchi 2017)를 지지하며, 일본과 대만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다른 국가 출신자보다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낮은 것은 이민자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을 확률이 호스트 국가와 문화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낮아진다는 Pendakur & Pendakur(1998)와 Portes & Rumbaut (2001)의 경험적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부족할수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부족할수록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지역사회의 열린 태도가 이민자의 긍정적인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Berry 1997)와 맥을 같이한다. 그 밖에도 가구 수입이 적을수록, 농촌에서 일하는 결혼이민자에 비해 도시에서 일하는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수를 투입하여도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지각할 확률은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남성 결혼이민자에게서 높게 나타나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 수준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상적 영역

다음으로 일상적 영역으로 분류한 거리나 동네, 상점이나 음식점 및 은행에서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지각할 확률을 성별과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투입하여 본다(<표 4>).

<표 4> 일상적 영역의 차별지각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거리나 동네		상점·음식점·은행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성별(기준=남성)	여성	-0.198***	-0.253**	-0.184**	-0.295***
연령			0.045**		0.039*
연령 제공항			-0.072***		-0.069***
출생시 국적 (기준=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0.090		0.422***
	중국		0.102		0.295**
	필리핀		0.323**		0.579***
	일본		-0.419**		-0.032
	캄보디아		0.300*		0.428**
	태국		0.224		0.557***
	대만		-0.183		0.722***
	한국		-1.273***		0.368
	미국		0.337*		0.441**
	캐나다		0.706**		0.731**
	파키스탄		0.406		0.400
기타		0.393***		0.399***	
현재 국적(기준=한국)	외국		0.075		0.170**
교육 연수			0.017*		0.019**
일자리 종류 (기준=무직)	상용 근로자		-0.007		0.007
	임시 근로자		0.164*		0.133*
	자영업자		0.058		0.077
	무급가족 종사자		-0.112		-0.231
한국어 실력			-0.311***		-0.271***
도움을 받을 사람: 집안의 어려움			0.000		-0.018
도움을 받을 사람: 여기나 취미생활			-0.108*		-0.042
도움을 받을 사람: 몸이 아플 때			0.097		0.050
모임활동: 모국인 친구			0.064		0.181
모임활동: 지역 주민			0.052		0.067**
모임활동: 종교 활동			0.153**		0.112
모임활동: 민간 단체			0.428***		0.429***
모임활동: 정치활동, 노동조합			0.379*		0.231

미취학 자녀		0.067		-0.011	
취학 자녀		-0.010		-0.058	
가구 수입		-0.019		-0.018	
지역(기준=도시)	농촌		-0.193***	-0.082	
Log Likelihood		-7424.365	-7102.542	-7457.991	-7167.517
Pseudo R^2		0.001	0.044	.001	0.039
N		15,080	15,080	15,080	15,080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거리나 동네에서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지각할 확률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필리핀, 캄보디아, 캐나다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중국계 한국인보다 차별지각의 수준이 높고, 일본, 한국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중국계 한국인보다 차별지각의 수준이 낮다. 이는 관계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 지각하는 차별이 외모나 피부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모가 한국인과 다를수록 차별적인 상황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 연수가 길수록, 한국어 실력이 어눌할수록, 종교 활동이나 민간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아진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차별에 대한 식별 수준이 높다는 결과는 Gong, Xu, & Takeuchi(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직접적인 형태에서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까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교육은 미묘한 형태의 차별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한 기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상점이나 음식점 및 은행에서 차별을 지각할 확률 역시 여성 결혼이민자 보다 남성 결혼이민자에게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투입한 모델 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중국계 한국인에 비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대만, 캐나다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다. 이는 거리나 동네라는 영역보다 일회적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는 상점, 음식점, 은행이라는 영역에서 외모의 차이가 차별을 유발할 확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러한 결과는 국적과 피부색

이 차별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희정·조영아 2017; 신난희 2018; 임경희·김보경 2021)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 밖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일수록, 교육 연수가 길수록, 한국어 실력이 어눌할수록, 종교 활동이나 민간단체 활동이 활발할수록, 상점이나 음식점 및 은행과 같은 일상적 영역에서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 영역과 일상적 영역에서 남성 결혼이민자가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높은 것은 소수집단의 차별지각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게 보고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Forman, Chen, & Evans 1997; Kessler et al. 1999; Sellers & Shelton 2003; Bank, Kohn-Wood, & Spencer 2006)과 일치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혼이민자의 차별문제를 사회적, 정책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서 남성 결혼이민자가 주요한 정책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많은 경우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주요한 대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위 결과들은 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 모두를 포함하여 논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3) 사적 영역

공적 영역과 일상적 영역에서 남성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 수준이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사적 영역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 수준이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적 영역에서 차별을 지각할 확률을 분석한 <표 5>를 보면, 가족관계와 친척관계를 포함한 가정의 영역에서 차별을 지각할 확률은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여성 결혼이민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투입한 모델 2를 살펴보면 현재 무직인 경우보다는 임시 근로자일수록, 한국어 실력이 어눌할수록,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주변에 부재할수록, 민간단체에서 모임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취학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일수록 친척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도 성별에 따른 차별지각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결혼이민자가 가지는 차별지각이 성별이라는 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이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영역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차별지각 정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차별을 지각하는 빈도와 영역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차별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이나, 우울증, 불안이나 공포 등을 강하게 경험하고 내면화하는 집단은 주로 여성이며(Bank, Kohn-Wood, & Spencer 2006), 차별 경험과 주관적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역시 여성이라는 연구결과(김유균·손인서·김승섭 2015)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관계나 친척 관계를 포함한 사적 영역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의 주요한 무대(김지영·이윤석 2022)라는 점을 고려하면 결혼이민자가 맞닥뜨리는 차별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성별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과 친척의 다문화 수용적 태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표 5> 사적 영역의 차별지각을 종속변수로 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집(가족관계, 친척)	
		모델 1	모델 2
성별(기준 = 남성)	여성	0.566***	0.400**
연령			0.040
연령 제공항			-0.060*
	베트남		0.121
	중국		0.205
	필리핀		0.226
	일본		-0.150
	캄보디아		0.202
출생시 국적 (기준=한국계중국인)	태국		-0.238
	대만		0.066
	한국		-0.467
	미국		-0.031
	캐나다		0.296
	파키스탄		0.225
	기타		0.131
현재 국적(기준 = 한국)	외국		0.035
교육 연수			0.009

일자리 종류(기준 = 무직)	상용 근로자	0.037	
	임시 근로자	0.290**	
	자영업자	0.003	
	무급가족 종사자	-0.180	
한국어 실력		-0.318***	
도움을 받을 사람: 집안의 어려움		0.052	
도움을 받을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		0.068	
도움을 받을 사람: 몸이 아플 때		-0.351**	
모임활동: 모국인 친구		0.015	
모임활동: 지역 주민		-0.060	
모임활동: 종교 활동		0.076	
모임활동: 민간 단체		0.649***	
모임활동: 정치활동, 노동조합		0.363	
미취학 자녀		0.082	
취학 자녀		0.139**	
가구 수입		-0.015	
지역(기준 = 도시)	농촌	0.042	
Log Likelihood		-4075.976	-3948.975
Pseudo R^2		0.004	0.035
N		15,080	15,080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각한 다양한 차별의 경험을 조사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차별의 경험이 남성 결혼이민자와 여성 결혼이민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공적 영역, 사적 영역, 일상적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 차별 경험을 줄여나가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영역에 따라 차별을 지각할 확률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첫째, 남성 결혼이민자가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지각하는 영역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공적 영역, 일상적 영역, 사적 영역으로 나누어 총 다섯 가지 예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족과 친척 관계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을 제외하면 모든 장소에서 남성 결혼이민자가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차별을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온 국적(김희정·조영아 2017; 신난희 2018; 임경희·김보경 2021), 문화적 유사성 정도(Pendakur & Pendakur 1998; Portes & Rumbaut 2001), 언어능력이나 교육수준(Gong, Xu, & Takeuchi 2017), 지역사회의 환대(Berry 1997), 종교적인 요인(Andriessen, Fernee, & Wittebrood 2014)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의 차별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반드시 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제까지 결혼이민자에 관한 연구가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연구결과는 앞으로 결혼이민자 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성 결혼이민자들은 공공기관 또는 직장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보다 차별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연구들에 따르면 관공서나 공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문화적 차이와 한국인들의 선입견 등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하중천·오영훈 2021).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 경향에 따라 국내에 정주하는 외국인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개인에서 조직까지 다양한 단위들이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갖추고자 노력해야 한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차별을 경험했을 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며 제도적 환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최영미·송영호 2018). 때문에 기관이나 직장에서 차별 주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외국인들의 민원을 받아주고 개선을 추구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사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을 지각할 확률이 높은 영역이 가족관계와 친척관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차별을 지각할 확률과 상관없이 차별로 인해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부정적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Bank, Kohn-Wood, & Spencer 2006; 김유균·

손인서·김승섭 2015)에 비추어 볼 때 여성 결혼이민자의 차별문제에 대한 접근은 사적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여성들은 한국의 부계중심적인 가족구조 속에 한국인 배우자에 대해 권력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되기 쉽다(조희원 2016). 사실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은 공공 영역에서의 차별보다 정책적 개입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몇몇 연구들은 결혼 이주여성들을 종교 또는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켜 일부 한국인 배우자들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마련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한다(성지혜 2015; 이상형·김종일 2018). 앞으로 이러한 노력에 대해 정책적 그리고 학문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가지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앞으로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남성 결혼이민자와 여성 결혼이민자가 영역에 따라 차별지각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은 밝혀냈지만 이러한 차이가 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영역별 노출빈도의 차이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남성 결혼이민자와 여성 결혼이민자의 영역별 노출빈도 그 자체의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차별 경험을 차별지각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남녀 결혼이민자의 차별지각 수준의 차이를 드러냈으나,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남녀 간에 차별지각이 차이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추후 이론적 연구를 보강하여 성별에 따라 차별지각이 나타나는 원인에 관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변수를 포괄적으로 투입하여 이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차별지각에 미치는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밝혀냈지만, 사회경제적 지위변수가 매개효과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의 차별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지각을 조사하는 항목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도 논란 바와 같이 현대의 차별 형태는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에서 미묘하고 간접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Lee & Turney 2012; Bank, Kohn-Wood, & Spencer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차별의 경험 여부와 빈도, 그리고 대응에 대해서만 집계되고 있어,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 즉, 표현이나 부정적 처우나 불평등한 대우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인지, 욕설이나 헐뜯, 폭력과 같은 직접적이고 직

관적인 차별인지, 미묘한 말투나 태도에서 느껴지는 차별인지 그 내용을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차별의 내용이 분류될 때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정확히 집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원. 2013. “융합미디어와 사적·공적 영역의 변형: 새로운 중간영역의 부상과 그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2(4): 125-143.
- 김순규·이주재.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5-20.
- 김유균·손인서·김승섭. 2015. “결혼이민자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건강수준 간의 연관성: 출신지역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421-452.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연구원.
- 김이선. 2021. “한국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주여성, 한국인과 함께 모임·활동참여는 어려워.” 《KWDI 이슈페이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영·이윤석. 202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차별경험.” 《지역과 세계》 46(3): 5-33.
- 김태홍·안상수·박선영·김난주. 2011. 《국적 제고를 위한 차별 없는 사회기반 구축 한국》. 여성개발연구원.
- 김한성·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177-209.
- 김희정·조영아. 2017.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24: 99-140.
- 류한수. 2016.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345-356.
- 민무숙·이수연·박영도·이준일. 2004. 《국민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수미·정기선·김혜숙·박진. 2004.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변수정·정희선·김기태·이창원·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윤희·정주리. 2019. “가부장적 가정환경이 남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차별적 인식과 남성 성역할 갈등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2): 547-567.
- 성지혜. 2015.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지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88(1): 83-115.
- 신난희. 2018. “탈북이주여성의 디아스포라(Diaspora)와 행위성에 관한 성찰.” 《한국학연구》 65: 175-205.
- 양현아. 2013. “가족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 실험.” 《저스티스》 134(2): 298-335.
- 염영희·손희숙·이현숙·김명애. 2017.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 실태와 신체적 증상, 소진, 우울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임상간호연구》 23(2): 222-235.
- 이상형·김종일. 2018. “결혼이주여성의 부적응과 불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소고” 《동아시아불교문화》 36: 619-640.
- 임경희·김보경. 2021. “민족과 성으로 본 결혼이주여성의 배제와 차별.” 《사회사상과 문화》 24(2): 147-190.
- 정기선·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조선주·안주희. 2020.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이 세 가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5(2): 69-103.
- 조하영. 2021. “적응에의 열망이 차별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사회연구》 14(2): 151-188.
- 조희원. 2016.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와 사회통합.” 《분쟁해결연구》 14(3): 163-190.
- 최연희·이현승. 2016.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2): 96-103.
- 최영미·송영호. 2018. “경기도 지역 이주노동자의 주관적 차별인식과 우울: 차별대응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0(4): 1-22.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하종천·오영훈. 2021. “외국인 노동자와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사례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1): 83-102.
- Andriessen, I., H. Fernee and K. Wittebrood. 2014.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h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Hague.
- Araico A.S., J.T. Mason, N.O. Sáez, and D.M. Schwartz. 2020. *Potential Victims'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Racial or Ethnic Origin*. RED2RED

- Consultants for the Council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and Ethnic Discrimination, Madrid.
- Banks K.H., L.P. Kohn-Wood, and M. Spencer. 2006. "An Examination of the African American Experience of Everyday Discrimination and Symptoms of Psychological Distres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2(6): 555-570.
- Berry, J.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Clark, R., N.B. Anderson, V.R. Clark, and D.R. Williams. 1999. "Racism as a Stressor for African Americans: A Biopsychosocial Model." *American Psychologist* 54(10): 805-816.
- Dovidio J.F., M. Hewstone, P. Glick, and V.M. Esses. 2010. *The SAGE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SAGE Publication, London.
- Gong, F., J. Xu, and T.D. Takeuchi. 2017. "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Everyday Discrimination." *Sociology of Race and Ethnicity* 3(4): 506-521.
- Kessler R.C., K. Mickelson, and D.R. Williams. 1999. "The Prevalence, Distribution,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3): 208-230.
- Landrine, H., and E.A. Klonoff. 1996. "The Schedule of Racist Events: A Measure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a Study of Its Negative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sequence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2(2): 144-168.
- Lazarus R.S.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Lee H., and K. Turney. 2012.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Social Status, and Mental Health." *Society and Mental Health* 2(1): 1-20.
- Lee, S., and D.S. Kim. 2014. "Acculturat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Women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2): 453-483.
- Lorelynn M.C. 199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Measuring Valence of Ethnicity and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2(1): 49-59.
- Major, B., W.J. Quinton, and S.K. McCoy. 200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ttributions to Discriminat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c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4: 251-330.
- Pascoe, E.A. and L.S. Richman,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 531-55.
- Pendakur K. and R. Pendakur. 1998.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Revue*

- Canadienne d'Economique* 31(3): 518-548.
- Portes A. and R.G. Rumbaut. 2001. *Legacies: The Story of the Immigrant Second Gen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
- Romero, A.J. and R.E. Roberts. 1998.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nd Ethnocultural Variables in a Diverse Group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1(6): 641-656.
- Schmitt, M.T., N.R. Branscombe, T. Postmes and A. Garci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 Bull* 140(4): 921-948.
- Sellers, R.M. and J.N. Shelton. 2003. "The Role of Racial Identity in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79-1092.
- Tajfel, H. 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5): 96-103.
- Taylor, S. E. 2007. "Social support." pp. 145-171 in *Foundations of Health Psychology*. Friedman, H.S. and R.C. Silver(Eds.). Oxford University Press.
- Williams, D.R., Y. Yu, J.S. Jackson, and N.B. Anderson. 1997. "Racial Differenc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Socioeconomic Status, Stress, and Discrimina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 335-351.
- Williams, D.R., M.S. Spencer, and J.S. Jackson. 1999. "Race, Stress, and Physical Health: The Role of Group Identity." pp. 71-100 in *Self, Social Identity, and Physical Health: Interdisciplinary Explorations*. Contrada R.J. and R.D.(Eds.) Ashmo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접수 2023.01.26; 수정 2023.02.09; 게재확정 2023.03.13>

Level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among Marriage Migrants and Policy Implications

JiYoung Kim
(University of Seoul)

Yun-Suk Lee
(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female and male marriage migrants' level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differ. To this end, we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using data from the 2018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ale marriage migrant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discrimination in the public and private spaces than female marriage migrants. Second, female marriage migrants are more likely to perceive discrimination in the everyday spaces than male marriage migrants. These gender differences are significa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several social and demographic fac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scrimination correction policies should be designed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discrimination that occurs in family relations for female marriage migrants, while focusing on discrimination in the public and daily spheres for male marriage migrants.

Key words: perceived discrimination, marriage migrants, public space, private space, everyday space